

# 지상작전의 원칙 측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 연결작전 고찰

김규빈\* · 최영렬\*\*

## 목 차

- I. 서론
- II. 작전지역의 특징과 피·아의 상황
- III. 1단계 : 미 제1해병사단의 포위된 부대 연결작전
- IV. 2단계 : 미 제1해병사단의 군단 연결작전
- V. 지상작전의 원칙 측면에서 분석
- VI. 결론

## I. 서론

1950년 10월25일부터 국군과 유엔군의 국경진출은 중공군의 제1차 공세로 저지되었다. 하지만 중공군의 한반도 진입목적과 투입규모를 오판한 유엔군은 중공군이 조직적인 공격을 실시하기 이전에 전쟁을 종결한다는 계획에 따라 미 제8군 3개 군단과 미 제10군단을 투입하여 1950년 11월24일 총공세(크리스마 공세)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국경진출에 실패한 유엔군의 공세를 예상하고 서부

\* 육군 대령, 육군대학 전쟁사학처장, 군사학 석사, 1221kkb@gmail.com

\*\* 육군 중령, 육군대학 전쟁사 교관, 국방정책 석사, kunsus0011@gmail.com

지역의 미 제8군 정면에 제13병단을, 동부지역의 미 제10군단 정면에는 미8군과 벌어진 80마일의 간격사이로 제9병단을 투입하여 11월25일부터 대규모의 2차 공세를 실시하였다.

서부전선의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묘향산맥 일대에서 국군 제2군단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고 미 제9군단은 퇴로가 차단되는 위기에 처했다. 동부전선에서 청진일대의 국군 제1군단과 미 제7사단 지역은 소규모 조우전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급편방어로 전환되었다.<sup>1)</sup> 총 30개 사단의 중공군이 공세를 개시하자 국군과 유엔군의 전반적인 상황은 쉴새 없이 불에 뛰어드는 격이 되어 버렸다. 상황이 악화되자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11월28일, 유엔군 사령부에서 긴급작전회의를 열고 미 제8군은 청천강 이남으로, 미 제10군단은 흥남 일대로 집결을 지시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발생한 장진호 전투에 대해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가 발행한 공간사(公刊史)에서는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1해병사단이 중공군 제9병단 예하 7개 사단규모가 형성한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해 2주간에 걸쳐 전개한 철수작전으로 기술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필자는 장진호 전투를 우군과 단절된 상태에서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한 연결작전으로 분류<sup>3)</sup>하고 전투 진행을 두 단계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진흥리에서부터 유담리에 이르기까지 50km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산된 채 중공군에게 포위된 부대를 하갈우리로 연결하는 1단계 작전과 미 제10군단을 해상으로 철수시키기 위해

---

1) 강경표 외 7명 공저,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사」 (인천:진영사, 2012), p.232.

2)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6·25 전쟁사」 제7권, 2010, p.469.

3) 철수작전은 적과 접촉하고 있는 부대를 접적지역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이탈하는 것으로서 아 전투력을 보존하거나 타 지역으로 부대를 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지연방어 수행방법이다.(육군본부, 야전교범 0-1 「전술」 (육군인쇄창, 2013), p.5-70.) 그러나 적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전투는 포위하 방어, 포위망 탈출, 연결작전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미 제1해병사단이 포위망을 돌파하여 군단과 합류하기 위해 함흥일대로 이동한 작전은 연결작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지상작전의 원칙 측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 연결작전 고찰

하갈우리에 집결한 사단을 고토리-진흥리를 거쳐 함흥에 있는 미 제10군단과 연결하는 2단계 작전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전투를 지상작전의 원칙 측면에서 고찰해 볼 것이다.

## II. 작전지역의 특징과 피·아의 상황

### 1. 작전지역의 특징

함흥에서 장진호에 이르는 지형은 해발 2,000미터의 낭림산맥이 남북으로 뻗어있고 함흥-장진호 사이에는 부전령산맥이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다. 황초령 이북은 한반도의 지붕이라 불리는 평균고도 1,200m의 개마고원이 펼쳐져 있고 부전호와 함께 우리나라의 양대 인공호수인 장진호<sup>4)</sup>가 위치해 있다.

함흥-유담리간의 작전지역내에는 단 하나의 S형 굴곡도로가 99.4km에 걸쳐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장진호 지역의 기후는 10월 하순에 강설이 시작되고 11월 하순경의 기온은 섭씨 영하 27도까지 급강하한다. 따라서 도로는 적설과 빙판으로 변하여 매우 열악한 작전환경을 만들었으며 장비 및 전투원의 전투효율성을 저하시켰다.

### 2. 중공군의 계획과 미 제1해병사단의 상황

#### 2.1. 중공군 제9병단의 계획

1950년 11월 초순 절강성에서 이동한 중공군 제9병단은 장진호로 남하하여 제13병단 예하의 제42군으로부터 작전지역을 인수받았다.<sup>5)</sup>

4) 장진호는 저수량 10억 5,900만톤의 중력식 콘크리트 댐으로 1938년 완공되었으며, 일제는 장진호에 4개의 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흥남, 원산의 공업지대와 서울 및 평양지역으로 송전하였다.

제9병단의 작전기도는 주력을 집중하여 미 제1해병사단의 진출을 하갈우리, 신흥리, 유담리 지역에서 섬멸하는 1단계 작전 후 함흥-홍남지역으로 추격하여 미 제10군단을 격멸하고 일부병력은 북한군 제2전선 부대와 합동으로 원산을 공격한다는 2단계 작전을 구상하였다. 이를 위해 제27군은 장진호 북방에 전개하여 장진호 동쪽의 신흥리 지역과 장진호 서쪽의 유담리 지역에서 각각 양방향으로 공격하여 적을 포위 섬멸하고, 제20군은 장진호 서쪽으로 우회하여 미 제1해병사단의 유일한 보급로인 하갈우리-함흥간의 산악도로를 차단 후 공격을 확대하는 제27군과 협조하여 미군을 포위 섬멸코자 하였다.<sup>6)</sup> 이에 따라 중공군 제9병단은 제20군과 제27군을 제1제대로, 그리고 남하중인 제26군을 예비로 편성하였다.<sup>7)</sup>

## 2.2. 미 제1해병사단의 상황

1950년 10월26일 원산에 상륙한 미 제1해병사단은 군단으로부터 신갈파진-후창강구 간의 압록강까지 진격임무를 부여받고 군단의 좌익을 엄호하며 북진을 시작하였다.<sup>8)</sup> 그러나 미 제10군단과 서부지역 미 제8군의 간격이 점점 더 확대됨에 따라 미 제1해병사단의 공격방향은 북진에서 서진으로 변경되었다.<sup>9)</sup> 이에 따라 장진호 동쪽에서 북진을 준비하던 제5연대전투단은 제7연대전투단을 초월공격하기 위해 서쪽 유담리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미 제7사단의 1개 혼성연대는 미 제1해병사단의 우측을 엄호하기 위해 풍산, 구중리 일대에서 장진호 동쪽으로 이

5) 중공군 제42군은 1차 공세 간 동부지역에서 북진하는 유엔군을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9병단의 전개에 따라 영변으로 이동하여 11월25일, 중공군 제2차 공세에 참가하였다.

6) 육군본부, 「중공군이 경험한 한국전쟁(상)」, 1956, pp.151~152.

7) 육군대학, 「6·25전쟁사 부도(육군인쇄창, 2004), p.135.

8)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6·25 전쟁사」 제7권(2010) p.469.

9) 위의 책, p.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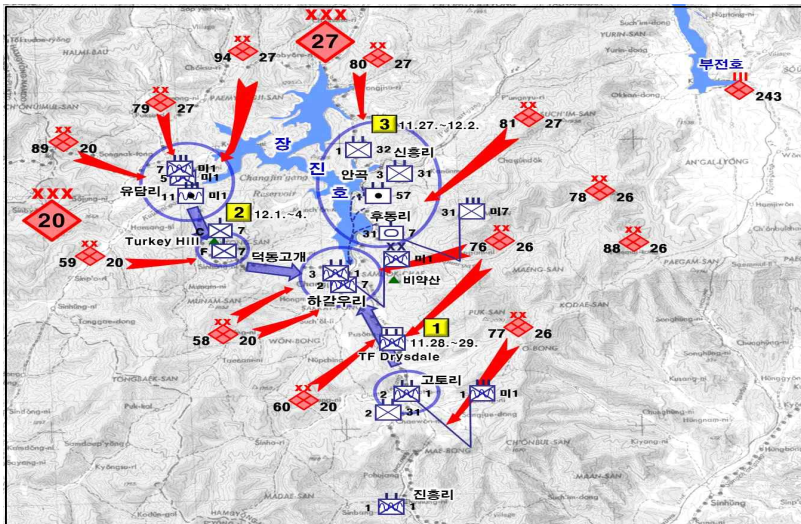
## 지상작전의 원칙 측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 연결작전 고찰

동하여 미 해병 제5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였다.

서부전선에서 미 제8군이 중공군 제13병단에게 고전하고 있던 11월 27일 08:15, 미 제1해병사단은 유담리, 하갈우리, 진흥리 등에 분산된 상태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날 18:30분부터 중공군 제9병단의 대규모 공세가 개시되었으며, 미 제1해병사단은 중공군 7개 사단에 의해 장진호 일대에서 포위되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 III. 1단계 : 사단 내 포위된 부대 연결작전

대규모의 중공군 공세로 장진호 지역의 상황이 급변하자 미 제10군단장은 11월30일, 하갈우리에 위치한 미 제1해병사단 지휘소에서 미 제7사단장과 미 해병 1사단장을 소집하여 작전회의를 열고 장진호 부근의 모든 부대를 함흥-홍남 지역으로 집결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그림 1〉 미 제1해병사단의 포위된 부대 연결작전

이에 따라 미 제1해병사단은 <그림1>과 같이 먼저 ① 『드라이스데일 TF』를 하갈우리로 연결하여 사단의 중심을 방호하고, ②장진호 서쪽에 고립된 사단 주력과 제7연대 F중대를 구출하여 분산된 부대를 집결시키며, ③장진호 동쪽의 미 제7사단 예하의 『페이스 TF』가 하갈우리로 집결하는 1단계 연결작전을 수행하였다.

## 1. 『드라이스데일 TF』의 고토리-하갈우리 연결작전

### 1.1. 사단의 중심을 방호하기 위한 선제조치

장진호 남단의 분기점에 위치한 하갈우리에는 사단 지휘소와 보급기지가 위치해 있어서 장진호 서쪽의 주력과 동쪽의 미 제7사단을 연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단지 제1연대 제3대대(-)와 전투지원부대 위주의 빈약한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사단이 하갈우리에 지휘소를 개설한 11월28일 11:00경, 적의 주력은 하갈우리 전방 5마일 지점까지 접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된 미 해병 제1연대 D중대의 고토리-하갈우리 연결시도는 중공군 제60사단의 강력한 기습을 받아 저지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부상중인 영 해병 제41특공대<sup>10)</sup>를 중심으로 『드라이스데일 TF』를 편성하여 주보급로 개통임무를 수행토록 명령하였다.

### 1.2. 발생한 피해와 지휘관의 결단

11월29일 09:45, 포병 지원사격하에 『드라이스데일 TF』는 고토리-하갈우리 연결작전을 개시하였다. 『드라이스데일 TF』는 시시각각 증강된 적의 화력에 사상자가 속출하고 선두의 전차 D중대와 병력이 혼재된 상황 속에서 수차례 전진이 중단되었으나 사단장의 강력한 돌파

---

10) 드라이스데일(Drysdale) 중령이 지휘하는 영 해병 제41특공대는 미 제1해병사단 7연대에 배속되어 공격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부상 중에 있었다.

지상작전의 원칙 측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 연결작전 고찰

명령에 따라 하갈우리와 고토리 중간지점인 부성리 일대의 “죽음의 계곡(Hell’s Fire Valley)”을 강행 돌파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대는 단절되었으며, 통신이 단절된 가운데 후속제대가 계속 뒤따르고 있다고 인식한 『드라이스데일 TF』는 악전고투 끝에 11월29일 19:15경 하갈우리에 진입하였다.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드라이스데일 TF』는 병력의 35%, 차량75대, 전차1대가 손실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하갈우리에 진입함으로써 하갈우리에는 병력 400여명과 전차 16대<sup>11)</sup>가 증원되었고, 이날 22:30경부터 시작된 중공군 제58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을 막아냄으로써 『드라이스데일 TF』는 하갈우리 방어의 주체가 되었다.

<표 1> 『드라이스데일 TF』의 피해 현황

부대편성	병력손실(명)			장비손실(출동/손실 대수)		
	총원	전사/실종	부상	전차	차량	
영 해병 제41특공대	235	18	43			
해병 제1연대 G중대	205	8	40			
보병 제31연대 B중대	190	100	19		22/22	
해병 1사단 본부 및 근무대대	62	25	25		17/17	
해병 제1통신대대	8	4	2		4/-	
해병 제7수송대대	12	2	3		22/5	
해병 제1전차대대	본부중대	18	5	6		31/30
	B중대(-1)	86	-	12	12/-	23/-
	D중대(-1)	77	-	8	12/1	22/1
해병 제5연대 대전차중대 전차소대	29	-	1	5/-		
총계	922	162	159	29/1	141/75	

11) 최초 투입된 29대 중에서 최후미의 전차 B중대는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하지 못하고 고토리로 복귀하였으며, 작전간 파괴된 전차 1대를 제외하고 전차 D중대 11대와 제5연대 전차소대의 5대 등 총16대가 하갈우리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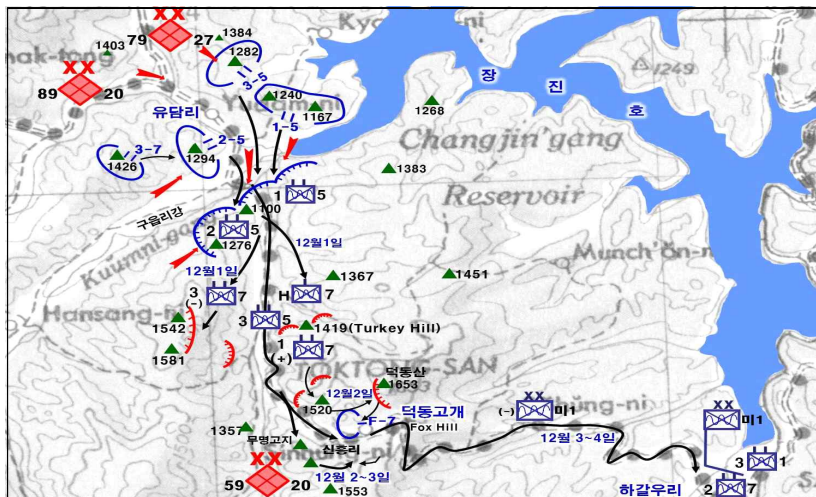
## 2. 미 해병 제5, 7연대의 유담리-하갈우리 연결작전

### 2.1. 포위된 부대의 독단활용과 협조된 계획 수립

11월27일 18:30경, 유담리에서 공격중인 미 해병 제5,7연대는 중공군 제20군과 제27군의 대규모 공세에 부딪혔다. 이에 미 제1해병사단장은 11월28일 11:00를 기해 방어로 전환하고, 11월30일, 군단 작전명령에 따라 제5,7연대를 하갈우리로 집결시킨 후 하갈우리와 고토리에서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는 계획을 하달하였다.

포위망 돌파준비에 착수한 양개 연대는 『보병부대가 도로의 양쪽 고지를 확보한 다음에 부상자를 포함한 차량제대가 도로를 따라 전진하고, 이와 동시에 제7연대 제1대대는 독립작전으로 산악을 횡단하여 F중대와 합류한 후 덕동고개를 확보하여 주력의 통과를 엄호 한다』는 협조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 2.2. 포위망 돌파를 위한 방어진지 편성 및 애로지역 확보



〈그림 2〉 유담리-하갈우리 연결작전



## 지상작전의 원칙 측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 연결작전 고찰

12월1일 08시, 영하 24도의 혹한 속에 1282고지에서 중공군 제79사단과 대치하던 제5연대 3대대부터 근접항공지원과 포병, 박격포 사격지원하에 이동이 시작되었다. 이때 제5연대 1대대는 장진호 남서쪽의 저지대 방어진지를 편성하였고 2대대는 1276고지로 이동하여 제7연대 1대대로부터 진지를 인수받았다. 이로써 제5,7연대는 서쪽으로 1276고지로부터 동쪽으로는 장진호반에 이르기까지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 2.3. 적의 예상을 역이용한 기동

미 해병 제7연대 F중대가 배치된 덕동고개는 유담리-하갈우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요충지였다. 그러나 F중대는 중공군 공세 첫날 중공군 제59사단에 의해 포위되었으며 총 3회에 걸쳐 실시한 F중대와 연결작전 시도는 모두 실패한 상태에 있었다.

미 해병 제7연대의 F중대와 연결작전은 중공군의 예상을 역이용한<sup>12)</sup> 야간 산악기동으로 실시되었다. 12월 1일 21:00, 1419고지를 출발한 1대대는 혹한과 산악기동에 따른 극심한 체력소모를 극복하고 덕동산을 점령하여 측방위협을 제거 후 F중대와 연결에 성공하였다.

〈표 2〉 미 제1해병사단의 F중대 연결작전 현황

구분	일시	투입부대	결과
1차	11월28일	미 해병 제7연대 1대대(유담리)	실패 (C중대 구출)
2차	11월28일	미 해병 제7연대 2대대(하갈우리)	실패
3차	11월29일	Morris TF(유담리)	실패
4차	12월2일	미 해병 제7연대 1대대(유담리)	성공

12) 1차 공세이후 중공군은 『운산전투의 교훈』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미군은 후방이 파비되면 대부분의 중장비를 유기하며, 야간전투에 약하고 화력에만 의존하며 기습을 받으면 아주 겁을 낸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최용호, 「6·25전쟁의 실패 사례와 교훈」 (육군 군사연구소, 2004), pp.286~287.)

F중대는 전투기간 중 전사 26명, 부상89명, 실종3명 외에도 장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부상당한 상태에서 중공군 제59사단의 공격을 고착하고 사단의 전술적 요충지인 덕동고개를 5일간 고수함으로써 사단 주력의 유담리-하갈우리 연결작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2월1일 15:00, 제5연대 3대대는 강제고지인 1542고지와 1419고지를 공격중인 제7연대를 초월하여 전차 1대<sup>13)</sup>와 불도저를 선두로 돌파를 개시했다. 돌파 개시부터 중공군과 격전을 치르며 2개 중대가 좌우에서 적을 고착 견제하는 가운데 연대로부터 2개 중대를 증원받아 전날 제7연대 1대대가 점령했던 1520고지를 재점령하였다. 이후 덕동고개의 제7연대 1대대, 근접항공지원 엄호 하에 12월3일 13:00, 마침내 유담리와 하갈우리간의 분수령인 덕동고개를 완전히 확보하였다.

12월 4일 14:00, 전차 1개 소대로 증강된 영 해병 제41특공대의 엄호를 받으며 최후미 부대가 하갈우리에 진입함으로써 77시간 동안 22km에 걸친 유담리-하갈우리 연결작전은 종료되었다.<sup>14)</sup>

〈표 3〉 유담리-하갈우리 연결작전 간 이동거리 및 시간소요

구 분	이동거리 (유담리~하갈우리)	시간소요		시간당 이동거리	
		선두부대	최후미 부대	선두부대	최후미 부대
내 용	22km	59H	77H	268m	370m

13) 11월27일, 사단장은 공격제대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 결빙된 노면을 따라 M4A3 전차 1대를 실험삼아 보낸 것이 3시간 만에 유담리에 도착하였다.

14) 연결작전 간 미 제1해병사단은 전사 164명과 실종 55명, 부상 921명 등 1,140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했다. 장비는 155밀리 건인포 1문이 계곡에 추락하였으며, 8문은 유류부족으로 파괴하였다. 반면 중공군은 8,5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장진호전투」, 1981, p.199.)

### 3. 미 제7사단 『페이스 TF』의 하갈우리 연결작전

#### 3.1. 전투지휘 능력의 조기 상실

11월27일 23시경, 풍류리강 북쪽에서부터 후동리 일대에 분산된 미 제7사단 제31연대전투단<sup>15)</sup>에 대한 중공군 제80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첫날 전투에서 숙영 중이던 안곡일대의 제31연대 3대대와 제57포병대대는 유린되었으며, 제31연대 3대대장과 대대참모 대다수가 전사하고 배속된 제5공군의 TACP반은 기능을 상실했다.<sup>16)</sup>

11월29일, 연대장은 분산된 부대를 안곡일대로 집결시켜 전투력을 집중하고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했으나 이동 간 연대장이 전사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부대는 선임장교인 제32연대 1대대장(페이스 중령)의 지휘아래 놓이게 되었다.

#### 3.2. 무계획적인 제31전차중대의 단독 연결작전 실패

전방부대 구출을 위한 연결작전은 2차례에 걸쳐 시도되었다. 11월28일, 후동리의 연대지휘소에 위치한 제31전차중대는 현장에 있던 미 제7사단 부사단장(호즈 준장)의 지시에 따라 전차 단독공격을 개시했다. 그러나 중대는 1221고지 일대에서 중공군에게 차단되었다.

11월29일 08:00, 제31전차중대는 포병, 공병, 본부요원 등으로 급조편성된 소수의 임시보병부대와 항공기의 엄호 하에 두 번째 연결작전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1221고지 주변의 결빙된 도로와 중공군의 공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철수함으로써 두 번에 걸친 연결작전 시도는 모두 실패하였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연결작전시도에 대해 『페이스 TF』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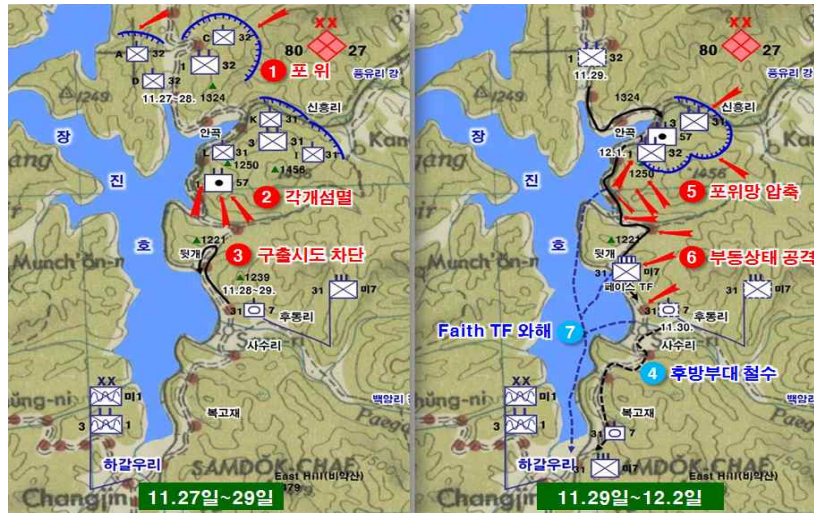
15) 맥클레인 대령이 지휘하는 제31연대전투단은 예하의 3대대와 연대본부, 연대전차중대 그리고 제57야전포병대대, 제32연대 1대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16) 로이 E 애플맨, 「장진호 동쪽」(서울:다트 앤, 2013), pp.111~112.

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떠한 통신망도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17)</sup>

### 3.3. 『페이스 TF』의 단독 포위망 돌파 실패와 붕괴

11월30일, 군단장 주관의 하갈우리 지휘관 회의 후 미 제1해병사단장과 제7사단장은 현재상태에서 『페이스 TF』의 구출이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날 후동리 일대의 제31연대 후방부대<sup>18)</sup>와 제31전차중대는 하갈우리로 철수하여 취약지역인 이스트 힐(비약산) 기슭에 배치되었다. 이에 따라 하갈우리와 『페이스 TF』 사이에는 어떤 우군부대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풍유리강 하구-하갈우리의 기동로는 중공군이 설치한 도로장애물로 차단되었다.



〈그림 3〉 『페이스 TF』의 하갈우리 연결작전 상황도

17) 로이 E 애플맨, 「장진호 동쪽」 (서울:다트 앤, 2013), pp.152~153.

18) 후동리에는 미 제7사단의 제31연대본부 및 본부중대, 제31전차중대, 제57포병대대 근무포대 등 3개 부대가 있었다.

## 이상작전의 원칙 측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 연결작전 고찰

2월1일 오후 12:50분, 『페이스 TF』는 항모 레이테에서 지원하는 항공기 20대의 엄호하에 하갈우리를 향한 포위망 돌파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부대는 생존을 위해 고지에서 도로로 몰려드는 병력들로 인해 중공군의 측방과 후방위협을 통제하지 못했으며, 차량제대의 엄호는 불가능했다. 또한 항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야간에는 부대이동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피해는 급속히 증가했으며 후위부대는 와해되었다.

12월2일, 결국 선두제대는 하갈우리 북쪽 7km에서 정지했고 페이스 중령이 전사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혼란에 빠진 부대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얼어붙은 장진호를 걸어서 하갈우리로 탈출하기 시작하였다. 12월 2일 새벽까지 생존자 중 670명이 하갈우리에 도착하였다.<sup>19)</sup>

## IV. 2단계 : 미 제1해병사단의 군단 연결작전

군단과 연결하기 위한 미 제1해병사단장의 작전구상은 제7연대전투단이 돌파개시와 동시에 제5연대전투단은 하갈우리 동쪽의 East Hill (비약산)을 확보하여 제7연대전투단의 돌파를 엄호한 뒤 이를 후속하고, 고토리에 도착 후에는 제1연대전투단이 사단 후위임무를 수행하여 함흥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 제1해병사단장은 군단과 연결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먼저, 연결작전의 사활이 걸린 황초령 고개의 굴곡도로와 이를 감제하는 1081고지를 중공군이 점령했다는 것과, 황초령 수문교가 중공군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것이다.<sup>20)</sup>

---

19) 생존자 구출에 나선 미 제1해병사단 수색부대는 장진호 부근의 전투에 투입된 3개 대대 2,600명 중 1,050명을 구출하였는데, 전투 가능한 병사는 385명뿐이었다. 또한 전사자는 300명만이 확인되었을 뿐 나머지는 실종되었다.

20) 유엔군의 북진작전 간 중공군은 미 제1해병사단이 진흥리를 통과하자 수문교를 파괴했다. 이에 사단 공병대대는 수문교를 보수했으나 2,3일 뒤 중공군이 재차 파괴하였다. 그래서 사단은 군단의 지원을 받아 도하용 조립교를 재 설치하였으나 12월4일, 항공정찰결과 교량은 또 다시 파괴된 상태에 있었다.

이에 사단장은 12월6일 밤, 군단장에게 진흥리를 방어중인 미 해병 제1연대 1대대로 하여금 1081고지를 공격할 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를 승인한 군단장은 원산에서 군단의 철수를 엄호하던 미 제3사단 1개 대대를 증강시켜 진흥리 진지를 인수받고, 미 제1해병사단의 돌파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편성된 『TF Dog』은 12월7일 23:10분에 미 해병 제1연대 1대대와 진지교대를 완료하였다.

〈표 4〉 미 보병 제 3사단의 『TF Dog』 편성

- |   |
|---|
| ○ 지휘 : 미 보병 제3사단 부사단장(준장 미드)                |
| ○ 편성 : 미 보병 제3사단 제7연대 3대대                   |
| ○ 배속 : 미 제92포병대대(155밀리 자주), 기타 방공, 공병 및 통신대 |

두 번째는 중공군이 파괴한 길이 9m의 수문교 절단부분에 대한 교량가설 문제였다. 사단 공병대대장이 제안한 도하용 조립교를 이용한 가교설치를 위해 군단은 일본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로부터 낙하산 기술요원을 지원받아 밤샘작업 끝에 대형 낙하산을 제작하여 8개의 도하용 조립교를 공중투하 하였다.<sup>21)</sup> 고토리에 투하된 조립교중 회수에 성공한 6개는 제7연대 선두에서 공병 2개 중대가 수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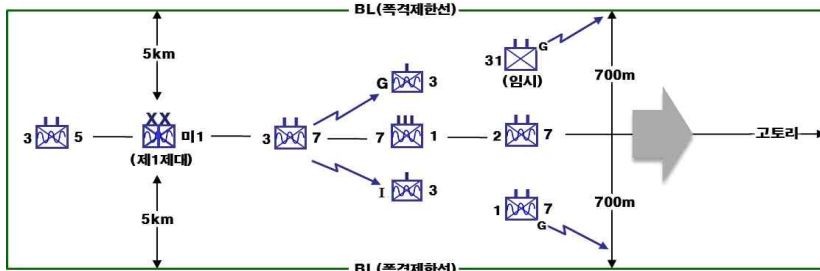
## 1. 하갈우리-고토리 연결작전

12월5일 밤부터 6일 아침까지 하갈우리와 고토리에 배치된 전 미군 포병의 공격준비사격 이후, 12월6일 04:30분, 미 해병 제7연대전투단은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화력의 책임구역은 선두부대의 각각 700m이 내는 보병이 담당하고 그 이상은 박격포와 포병이, 도로양쪽 5km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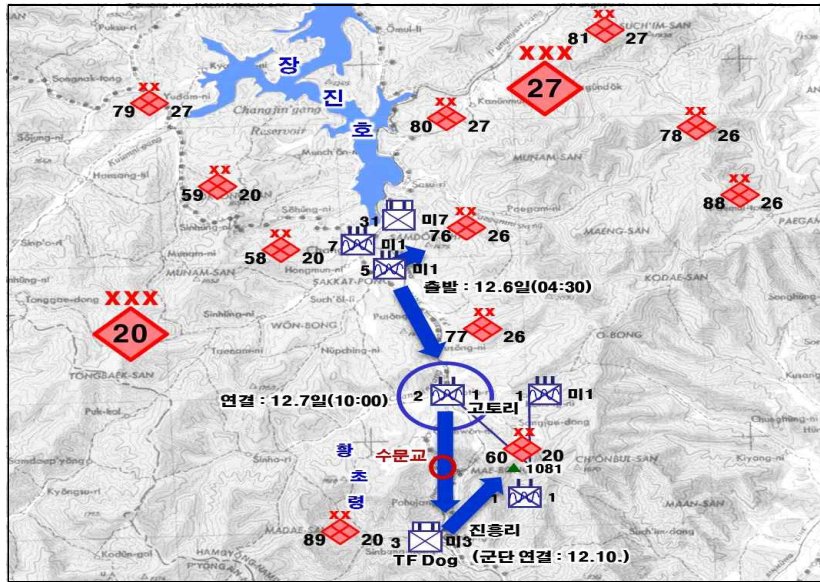
21) 군단은 12월6일 연포비행장에서 공중투하를 실험하였으나 1.1톤인 조립교는 접지 시 파괴되었다. 이에 군단은 유엔군 사령부에 낙하산 기술진 지원과 대형 낙하산을 요구하였으며 시간이 촉박하여 투하실험 없이 진행되었다.

지상작전의 원칙 측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 연결작전 고찰

은 항공기 임의공격이 허가되어 적의 집결 및 이동을 거부토록 하였다.



<그림 4> 미 해병 제7연대전투단의 돌파대형



<그림 5> 미 제1해병 사단의 군단 연결작전

그러나 선두부대는 공격을 개시한지 불과 1.2km 지점부터 중공군의 강력한 저지를 받았고, “죽음의 계곡”으로 진입했을 때는 더 이상의 전

진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제7연대장은 후방을 엄호하던 제3대대를 투입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제3대대장이 전사하는 등 위기에 처하였다.

약전고투 끝에 하갈우리를 출발한지 약 26시간만인 12월 7일 05:45분에 선두부대가 고토리에 진입하였고.<sup>22)</sup> 17:00에는 제7연대전투단의 모든 부대가 고토리로 진입하였다.

한편 제5연대전투단은 제7연대전투단의 공격을 개시하자 24대의 항공기 공중엄호를 받으며 이스트 힐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공군 역시 대대적인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제5연대전투단은 12월7일 일출시까지 이를 저지하였다.

12월7일 02:00, 제3대대가 전방을 엄호하는 가운데 전진을 시작한 제5연대전투단은 사단 선두부대와 달리 항공기 엄호 하에 비교적 경미한 적의 저항을 뚫고 고토리에 진입했으며, 후위인 제5연대 2대대가 24:00에 고토리에 진입함으로써 하갈우리에서 고토리간 15km구간의 총 41시간 30분간의 연결작전은 종료되었다.<sup>23)</sup>

이 기간 중 근접항공지원은 6·25전쟁 전 기간 중 가장 규모가 컸으며 5척의 항모를 포함하여 일일평균 230회 이상이 실시되었다.

〈표 5〉 하갈우리-함흥 연결작전 간 합동화력 운용

구 분	연포비행장	항공모함(5척)	
		바통 스트레이트	레이테, 벨리포지, 필리핀 씨, 프린스톤
1일 출격횟수	100회	30회	100회 이상

22) 이후 2,3대대는 다시 복진하여 고토리-1182고지간의 진지를 점령하고 사단의 주력을 엄호하였다.

23) 미 제1해병사단은 하갈우리-고토리 연결작전 간 전사 103명, 실종 7명, 부상 506명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진흥리에 배치된 제1연대 제1대대를 제외하고 병력 14,229명, 피난민 500여명, 차량1,400여대를 집결시키는데 성공하였다.



## 2. 고토리-함흥 연결작전

12월 8일 02:00, 진흥리에서 『TF Dog』 과 진지를 교대한 미 해병 제1연대 1대대는 눈보라 속에 야간기동을 시작하여 08:00부터는 진흥리에 위치한 제92포병대대와, 해병 제11연대 F중대의 지원사격 하에 1081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같은 시각, 제7연대전투단도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때 사단장은 『드라이스데일 TF』 의 경험으로 40여대의 전차는 최후미에 배치하였다.

12월9일 15:00, 제1연대 1대대는 악전고투 끝에 연결작전의 사활이 걸린 1081고지를 확보하였고, 사단 제대의 선두인 제7연대 1대대가 수문교를 확보하자 이를 후속한 공병대는 15:30경 교량복구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대기하던 사단의 차량제대는 18:00부터 수문교를 통해 이동을 시작하였다.

한편 제5연대전투단은 12:00에 공격을 개시하여 다음날인 12월 9일 아침, 항공기와 포병의 엄호하에 공격을 개시한 제7연대 전투단과 연결되었다. 또한 고토리의 일부지역을 방어하던 제1연대 3대대는 이날 아침 전진을 개시하여 선두부대와 교대하여 목표를 모두 확보하였다.

돌파 3일째인 12월10일 새벽(02:45), 제7연대전투단의 제1대대의 선두가 진흥리에 도착했으며, 각 부대들은 중공군 제9병단이 최후의 결전을 기도했던 황초령 돌파에 성공하고 『TF Dog』 와 미 보병 제3사단 65연대 엄호 하에 진흥리를 통과하였다.

12월11일 24:00에는 사단 최후미의 전차대대와 보병 제31연대 전차중대가 사단 수색중대의 엄호를 받으며 고토리를 출발하였다. 최후미 전차가 고토리 이탈과 동시에 진흥리의 각 포병대대는 일제히 고토리에 대한 차단사격을 실시하였다. 전차대대가 수문교를 통과한 12월11일 02:00, 수문교는 사단 공병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어 1081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제1연대 1대대가 전차대대를 후속하여 12월11일 13:00에 진흥리를 통과하였다. 이날 23:30분에 최후미의 전차대대가 흥남의 LST승

선지점에 도착함으로써 미 제1해병사단의 2주간 100km에 걸친 연결작전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sup>24)</sup>

## V. 지상작전의 원칙 측면에서 분석

### 1. “목표 : 명확하고 결정적이며 달성 가능”

지상작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을 격멸하고 전투의지를 파괴하는 데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군 격멸을 목적으로 시행된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 간 미 제1해병사단에게 부여된 목표는 적의 중심을 파괴하여 작전목적(북한군 격멸)에 기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었다.

먼저 목표의 명확성 측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의 목표는 3회에 걸쳐 변경되었다. 이것은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투력 운용의 지향점인 목표 자체가 명확하지 못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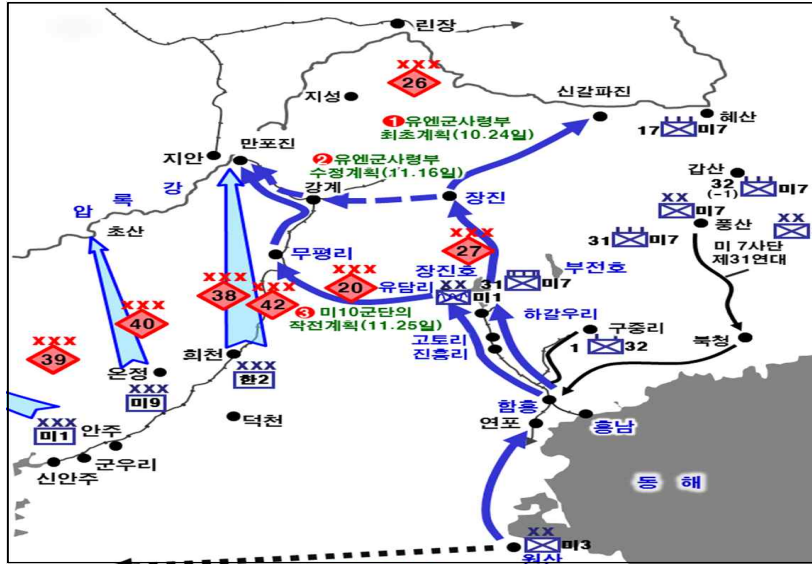
한반도 동쪽의 미 제10군단이 부여받은 최초의 임무는 미 제8군의 평양 점령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에서 서쪽으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 제8군이 평양으로 빠르게 접근하자 원산에 상륙한 미 제10군단과의 연결작전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에 미 제1해병사단은 신갈과진-후창강구 간의 압록강까지 진격임무를 부여받고 군단의 좌익을 엄호하며 북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진하는 미 제10군단과 미 제8군의 간격이 점점 더 확대되자 11월16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전략기획단은 보다 협조된 공격을 위해 적의 전략적 요충인 강계(북한의 임시수도)를 공격하여 미 제8군의 공격을 지원토록 공격계획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해병사단의 임무는 장진에서 만포진-강계-회천에 이르는 도로를 차단하여 공격중

24) 사단은 고토리 포위망 돌파작전에서 전사 75명과 실종 16명, 부상 256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제7권, 2010 p.469.

지상작전의 원칙 측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 연결작전 고찰

인 미 제8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sup>25)</sup>



〈그림 6〉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계획

그러나 미 제10군단장은 병참선이 신장되고 적의 위협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유담리에서 곧바로 서쪽의 무평리를 공격하는 안을 제외하였다. 이를 위해 장진호 동쪽으로 진출한 미 해병 제5연대를 서쪽 유담리로 전환하여 미 제1해병사단의 전투력을 집중시키고, 미 제7사단에서 1개 연대전투단을 편성하여 미 제1해병사단의 우측을 엄호한다는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맥아더 장군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 제1해병사단의 임무는 북진에서 서진으로 변경되었다.<sup>26)</sup>

이것은 적의 의도와 규모를 판단하지 못한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

25) 과거 장진군정 소재지였던 ‘읍상’(로이 E 애플맨, 「장진호 동쪽」(서울:다트 앤, 2013), p.24.

26)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6·25 전쟁사」 제7권, 2010 p.394.

세계획이 불완전하고 목표자체가 불명확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목표는 결정적이어야 한다. 미 제1해병사단이 무평리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은 적의 퇴로를 차단하여 미 제8군의 공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1월27일, 미 제1해병사단이 공격을 개시할 때 미 제8군은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 부딪혀 방어로 전환한 상태였다. 즉, 목표달성의 의미가 이미 상실된 상황에서 계속 공격을 진행하는 것은 설혹 무평리를 확보했다 해도 미 제8군의 작전에 전혀 기여할 수 없고, 오히려 미 제10군단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목표의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의 목표인 무평리는 장진호에서 64~80km 떨어져 있었다. 도로는 불확실 했으며 미 제10군단 지역 내에는 6개 중공군 사단이 식별된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영하20도를 밑도는 혹한 속에서 상륙작전부대를 해발 2천 미터가 넘는 산악지역작전에 투입한 것은 달성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했다.

결론적으로 유엔군사령부가 제시한 목표는 임무, 적, 지형과 기상, 가용능력, 가용시간 등을 고려하지 못한 오판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와 미 제10군단은 모든 부대의 전면 철수라는 새로운 목표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장진호 일대의 작전활동에 대한 모든 결정을 미 제1해병사단장에게 위임했다. 즉, 국경으로 진출하던 미 제10군단이 함흥-홍남 지역으로 집결하여 해상철수에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론은 미 제1해병사단의 능력에 맡겨졌으며, 미 제1해병사단의 성공여부가 미 제10군단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이를 수행한 미 제1해병사단의 작전목표는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1단계는 사단의 전투력 보존을 위해 분산된 부대를 하갈우리로 집결시키고, 2단계는 하갈우리에 집결된 전투력을 함흥-홍남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이 또한 미 제1해병사단을 포위한 중공군이 7개 사단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는 달성가능성이 희박했다.

반면 중공군 제9병단은 미 제1해병사단 섬멸이라는 목표를 선정했으

## 지상작전의 원칙 측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 연결작전 고찰

나 이는 1단계 작전을 통해 예하부대에게 부여된 목표가 달성되고, 2단계 작전을 통해 제26군이 전역우회에 성공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였다. 그러나 중공군 제9병단장은 1단계 작전에서 미 제1해병사단 섬멸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하갈우리라는 결정적인 목표를 간과했다. 오히려 계획을 수정하여 신흥리를 공격 후 유담리와 하갈우리를 공격한다는 작전을 구상함에 따라 하갈우리에 대한 공격 시기를 상실했고 2단계 작전목표달성(미 제1해병사단 섬멸)에 실패하였다.

중공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중공군 제80사단은 『페이스 TF』와 하갈우리의 연결을 차단시키고, 부대를 우회시켜 전투력이 취약한 하갈우리(미 제1해병사단의 중심)를 먼저 공격했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미 제10군단과 미 제1해병사단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갈우리 방어선의 가장 취약한 북쪽과 동쪽을 공격하려던 중공군 제80사단은 『페이스 TF』에 의해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하갈우리에 대한 중공군의 압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즉, 중공군 제80사단은 장진호 동쪽에서 11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페이스 TF』에 의해 차단되었고 전투력이 약화되었으며 이 기간 중 미 제1해병사단은 하갈우리에 사단 주력을 집결시킬 수 있었다.

## 2. “공세 :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 결정적인 성과 달성”

장진호 전투의 모습은 다소 의외의 현상을 보여준다. 즉, 3개 군을 투입하여 대규모 공세를 개시한 중공군은 오히려 방어하고, 방어해야 할 미 제1해병사단은 전투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공군은 미군의 후방을 차단하기만 하면 그 마비효과와 전투의지의 붕괴현상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병참선을 차단 후에 부동상태(浮動狀態)<sup>27)</sup>에 빠진 미군을 공격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 제1해병사단

27) 부동상태(浮動狀態)란 철수, 공격 및 전술적 이동 등 방어에 대비하지 않은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동간의 적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육군

은 중공군의 생각보다는 한 걸음 앞서 행동함으로써 중공군 제9병단장의 결심은 행동으로 옮기려는 순간 이미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즉, 미 제1해병사단장은 예하부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주도권을 확보토록 전투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했다. 또한 예하부대는 상호협조를 통해 실시간 발생하는 우발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함으로써 적보다 한 템포 빠른 작전속도를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해병사단은 중공군에 대하여 공세적인 방어와 대담한 공격을 병행하여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중공군은 이러한 미 해병의 전투행동에 대해“적군은 분할포위 된 상황을 모면하고 상호간의 연결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아군에게 끊임없는 반격을 실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sup>28)</sup>

유담리-하갈우리 연결작전 간 미 해병 제5연대는 근접항공지원과 포병사격 지원, 인접부대와 협조된 가운데 적으로부터 이탈하였으며, 차단진지를 점령한 부대는 부동상태의 미 해병대를 공격하려는 중공군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또한 미 제1해병사단은 중공군의 예상과는 다르게 부동상태에서도 주요 애로지역을 선점하는 공세적인 전투력을 운용함으로써, 중공군은 미 해병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공격해 오는 미 해병대를 방어해야 하는 역전현상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미 제1해병사단이 하갈우리-함흥 연결작전 간에도 계속해서 나타난다. 하갈우리를 출발하며 부동상태에 있어야 할 미 해병 제7연대전투단은 5연대 전투단이 하갈우리 북동쪽의 East Hill(비약산)에 대한 공세를 실시하는 가운데 돌파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중공군은 양개방향에서 공격해 오는 미 해병을 방어해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었다. 즉 중공군은 일반적인 미군의 전투양상과 다른 미 제1해병사단의 공세적인 전투력 운용에 휘말려 주도권을 상실하고, 차단지점을 방어하는 정적인 전투력 운용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

교육사령부, 「한국전의 기동전 분석」(1996), p.77.)

2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서울:세경사, 1991), p.63.

## 지상작전의 원칙 측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 연결작전 고찰

반면 수세적으로 방어진지를 유지하던 『페이스 TF』는 시종일관 중공군에게 주도권을 상실하였으며, 하갈우리 연결작전 간 부동상태에 빠진 가운데 지속적인 중공군의 공세로 점차 전투력이 소멸되었다.

### 3. “정보 : 적의 약점을 발견하여 적시에 이용”

중공군의 1차 공세 이후인 11월 24일,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에 진주한 중공군은 총 12개 사단으로서 병력은 4~5만 명이며, 그 중 2개 사단이 미 제10군단 정면에 있으며 중공군은 방어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sup>29)</sup> 미 제10군단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미 제1해병사단의 정보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미 제1해병사단이 입수한 정보자료는 “군단 지역 내에는 6개 중공군 사단이 식별되었다. 항공정찰 결과 장진호 북쪽과 동북쪽에 중공군의 부대활동이 활발하다.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중공군 제9병단 선두부대인 3개 사단은 11월 20일경 이미 유담리 부근에 도착하여 유담리 일대의 해병대를 단번에 포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 제1해병사단은 이러한 정보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중공군은 서측방으로 철수할 것이라 판단하였다.<sup>30)</sup>

즉, 상급부대의 작전적 오만과 잘못된 정보판단이 전술제대에게 비극적인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미 제1해병사단은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획득했으나 상급부대 판단에만 의존한 점은 미 제1해병사단장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정보가 있었고 11월 25일부터 서부지역에서는 대규모 중공군의 2차 공세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제10군단장은 계속해서 공격속도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미 제1해병사단은 유담리에서부터 진흥리까지 50km에 걸쳐서 분산되었다.

29)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6·25 전쟁사」 제7권, 2010 p.308.

3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장진호전투」, 1981, p.307.

중공군 제9병단의 공세가 개시된 11월27일, 미 제1해병사단의 우측방  
엄호임무를 부여받은 미 제7사단 제31연대전투단은 상식적으로 보면  
하갈우리로 즉시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군단장은 11월28  
일, 제31연대 2대대가 증원되는 즉시 공격을 재개할 것을 명령하였  
다.<sup>31)</sup> 정보의 오판에 따른 지휘관의 상황판단 역시 오판이었다.

그러나 하갈우리를 방어하던 미 해병 제1연대 3대대 정보장교(소위  
카레이)는 지역주민들을 활용한 첩보수집을 통해 중공군 1개 사단이  
하갈우리 서남쪽에서 집결중이고 11월28일 야간부터 공세를 개시한다  
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하갈우리에는 중공군의 공격에 대비  
할 수 있는 체계가 긴박하게 갖추어졌으며, 야간 22:30분부터 시작된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었다. 정보의 오판 속에서 한 대대 정보  
장교의 노력이 하갈우리를 방어하고, 사단의 운명을 구했던 것이다.

당시 미 제1해병사단 정보참모는 포로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사단을  
포위한 중공군은 하갈우리-고토리간 7개 사단을 전개하고, 사단이 하갈  
우리에서 돌파를 개시할 때 공격할 기도로 하갈우리-진흥리 간의 요소  
마다 병력을 집중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음 공세를 준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sup>32)</sup>

또한 진흥리를 방어하던 미 해병 제1연대 1대대장은 사단의 기동로  
상 가장 애로지역으로 판단되는 황초령 일대를 정찰하여 수문교를 감  
제할 수 있는 1081고지에 중공군이 배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적시  
에 보고함으로써, 사단장은 1081고지 확보를 위한 작전을 구상할 수 있  
었다. 이러한 적의 활동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하갈  
우리-함흥 연결작전 시 제대별 돌파대형을 구상하고 화력의 책임범위  
와 엄호부대를 운용하는데 적시성 있게 활용되었다.

---

31) 제31연대 2대대는 진흥리를 통과 중에 중공군의 공격으로 저지되었으며, 12월1  
일, 각각 분산된 채 고토리를 방어중인 미 해병 제1연대에 합류하였다. 이 후  
미 해병 제1연대에 배속되어 함흥으로 철수할 때 까지 고토리에 남아있었다.

3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장진호전투」, 1981, p.205.



#### 4. “지휘통일 : 단일 지휘관의 지시, 협조, 노력의 통합”

11월29일,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이 철수명령을 하달하기 4시간 전에 미 제1해병사단장은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하여 제5연대는 유담리지역을 계속 방어하고 제7연대는 전력으로 하갈우리에 이르는 보급로를 개통』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무렵 덕동고개에 고립된 제7연대 F중대의 구출과 하갈우리-고토리간의 주보급로 개통은 시급한 문제였다. 그러나 제7연대의 하갈우리까지 보급로 개통은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1개 연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명령을 하달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적에게 포위된 가운데 발생하는 다양한 우발상황 속에서 지휘관의 빠르고 통찰력 있는 상황판단이 부대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교훈을 도출한다.

장진호 일대의 모든 부대에 대한 지휘권은 미 제10군단 작전명령에 따라 11월30일 08:00부로 미 제1해병사단장에게 부여되었다.(로이 E 애플맨) 그러나 이 명령은 제대로 실현될 수 없었다. 11월30일 지휘관 회의에서 미 제1해병사단장과 미 제7사단장은 유담리에 있는 해병사단 주력이 하갈우리에 집결할 때까지 『페이스 TF』의 구출이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페이스 TF』의 붕괴에 대해 미 제1해병사단장의 책임이 면책될 수는 없다. 제31연대장 맥클레인 대령이 전사할 때 까지도 미 제1해병사단장은 제31연대전투단에 대한 어떤 지휘권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통신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

11월30일, 제31전차중대와 후방부대의 철수는 『페이스 TF』가 구출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박탈했다. 『페이스 TF』가 마지막으로 정지한 곳은 후동리 부근으로서 30시간 전 제31전차중대와 후방부대가 있

던 곳이었다. 누가 이 부대들에게 철수명령을 하달했는가에 대하여는 논란<sup>33)</sup>이 있으나 이 날 하갈우리에서 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있던 군단장, 제7사단장 역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적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이를 돌파할 때는 직면하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면밀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대장인 맥클레인 대령이 전사하고 『페이스 TF』가 자력으로 포위망 돌파를 시작할 때 각 부대들은 돌파가 시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인접한 다수의 부대는 부대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것은 각 부대 간 노력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포위망 돌파계획이 치밀한 협조 없이 시행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미 제7사단은 총 16,000명의 병력 중 1/3이상을 차지하는 6,794명의 KATUSA(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페이스 TF』에는 715명의 KATUSA가 편성되어 있었다. 『페이스 TF』의 붕괴에 대해 미 제7사단은 가장 큰 이유를 KATUSA 탓으로 돌리곤 한다. 이유야 어쨌든 언어의 장벽은 전투지휘에 있어서 큰 제한사항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표 6〉 미 제7사단 31연대 TF의 병력현황(추정)<sup>34)</sup>

구 분	총계	제31연대본부	제32연대 1대대	제31연대3대대	제57포병대대
계	3,257명	648명	967명	934명	708명
미군	2542명	398명	717명	684명	543명
KATUSA	715명	50명	250명	250명	165명

33) 이에 대한 논란은 로이 E 애플맨, 「장진호 동쪽」(서울:다트 앤, 2013), pp.239~243.을 참조

34) 로이 E 애플맨, 「장진호 동쪽」(서울:다트 앤, 2013), p.24.(제정리)

## 지상작전의 원칙 측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 연결작전 고찰

반면 미 제1해병사단의 연결작전 계획은 사단에 의해 집권화 된 가운데 부대 간 협조를 통해 구체화되고 분권화되어 시행되었다. 특히 유담리-하갈우리 연결작전 간 미 해병 제5,7연대의 협조된 계획수립과 작전실시는 대표적인 사례다.

유담리와 하갈우리가 중공군에 의해 포위되고 통신마저 지형조건에 의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단의 지휘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와 다름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해병 제5연대장 머레이 중령은 연대 지휘소 운용을 부연대장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제7연대 지휘소 옆으로 옮겨 양개 연대장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협조된 단일 지휘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양개 연대의 노력의 통합에 따라 사단은 시급한 하갈우리 방어에 집중할 수 있었고, 각 연대는 독단활용을 통해 협조된 작전과 창의적인 전투를 수행하였다. 이는 다양한 우발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연결작전 간 임무형 지휘의 중요성을 대표하는 사례이다.

한편 하갈우리에는 사단 직할부대, 한국 경찰대 등 각각 소속이 다른 50여개 부대 약 4,000여명이 집결해 있었으나 각각 독자적인 방어를 실시하고 있었다. 하갈우리 방어를 책임진 미 해병 제1연대 3대대장은 지휘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갈우리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단장에게 지휘의 단일화를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하갈우리 방어에 대한 지휘는 미 해병 제1연대 3대대장으로 단일화되었으며, 각 부대에는 책임구역이 부여되고 지휘소 간에는 통신선로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통일을 통해 미 제1해병사단은 11월 28일부터 시작된 중공군의 공세로부터 하갈우리를 방어할 수 있었다.

미 제1해병사단장 올리버 스미스 소장은 훗날 미 해병대 공간사를 편찬할 때 다음과 같이 증언 하였다. “광범위하게 분산된 부대의 지휘는 물론 그 행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때문에 각급지휘관의 독단활용이 중요했다. 혹한과 험준한 지형에서 장병의 굳은 정신력과 군기유지는 각급지휘관의 적절한 지휘통솔에서 비롯된 것이다.”

## 5. “기동 : 주도권 유지, 행동의 자유를 보장, 적을 마비”

중공군이 수행한 2차 공세의 특징은 운동전이었다. 운동전은 섬멸적인 전투승리에 그 목적이 있었다. 섬멸은 전역우회에 의한 포위기동과 밀접히 관계된다. 중공군은 적 퇴로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적의 심리 상태를 와해시키며 동시에 물리적인 섬멸이 가능한 필수조건이라고 간주하였다.<sup>35)</sup> 또한 중공군의 우회기동은 적의 병참선을 위협함으로써 혼란을 야기 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비중을 두었다. 즉, 미 제1해병사단의 병참선을 차단시키는 것은 육체조직을 마비시키는 것이며, 기동로를 차단하는 것은 정신조직을 마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공군 제9병단의 기동은 미 제1해병사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 공세개시 첫 날, 서부지역의 제13병단에 비해 공격출발위치에 늦게 도착한 중공군 제9병단은 공세 개시일을 11월27일 밤으로 연기하였다.<sup>36)</sup> 또한 하갈우리에 집결한 미 제1해병사단에 대한 섬멸임무를 담당한 제26군은 12월5일 공격을 계획 하였으나 이동시간이 지연되어 12월6일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이미 시작된 미 제1해병사단의 돌파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즉, 중공군이 중점으로 수행한 전역우회부대는 지정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고, 미 제1해병사단의 반응시간보다 빠르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달성된 성과를 확대하지 못했다. 더불어서 우회기동과 밀접히 연관되는 전술적인 분할포위를 완성했으나 전역우회부대의 지연은 미 제1해병사단의 돌파를 허용하는 원인이 되었다.

중공군은 전역우회부대인 제26군이 장진호에 보다 빨리 이동하지 못한 원인을 수송능력의 부족, 험준한 지형, 혹한의 기상, 미 공군의 위협 때문이었다고 평가하였다.<sup>37)</sup> 필자의 판단에 이러한 평가는 중공군이

35) 육군교육사령부, 「한국전의 기동전 분석」 (1996), p.82.

36)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서울:세경사, 1991), p.62.

## 이상작전의 원칙 측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 연결작전 고찰

장진호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전투력 운용의 잘못이 아니라 환경과 열세한 수송능력 탓으로 감추려는 의도로 보여 진다.

성공적인 기동은 적의 약점을 향해 적의 반응시간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속도가 생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동성, 적에 관한 지식, 효과적인 지휘통제, 균형된 편성과 적절한 군수지원이 필수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은 적보다 빠른 템포로 동시 연속적인 기동을 통해 하갈우리의 취약점을 보강하고 지속적으로 적에게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킴으로써 적의 균형을 와해시키고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공중을 통한 군수지원을 통해 장악한 주도권을 유지하였다. 즉, 유담리, 고토리 등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기동은 적에게 양개방향을 방어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도록 강요했으며, 전투 효율성을 발휘토록 편성된 연대전투단과 화력운용의 책임범위 설정, 기동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공중 재보급은 적의 약점인 보급의 취약성을 압도하여 계속적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작전시간이 경과 될수록 적은 기동속도와 전투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갈 수밖에 없었고, 미 제1해병사단은 포위망을 돌파하여 공격기세를 유지한 가운데 군단과의 연결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중공군은 미 제1해병사단과 시간의 싸움에서도 패배하였다. 중공군은 장진호 동쪽에서 미 보병 1개 연대를 섬멸하는 전술적 승리에 집착하여 5일을 허비하였다. 결과적으로는 1개 병단이 심대한 타격을 받아 부대를 재편성하고, 미 제10군단의 흥남철수작전을 허용해야만 하는 작전적 실패로 귀결되었다. 그런 점에서 하갈우리의 북동쪽에 투입된 중공군 제80사단의 공격은 하갈우리의 취약한 전투력 증강을 위해 투입된 『드라이스테일 TF』와의 시간싸움이었다. 즉 『드라이스테일 TF』가 중공군을 돌파하여 먼저 하갈우리에 도착하는가, 아니면 중공군 제80사단이 『페이스 TF』를 돌파하여 먼저 하갈우리를 공격할 것

---

37) 앞의 책, pp.73~74.

인가의 시간싸움이었던 것이다.

적 지역에 고립된 부대는 통상 작전지속지원 능력이 제한된다. 미 해병 제5,7연대의 보급을 위해서 사단 전방보급소가 유담리에 추진해 있었으나 식량과 탄약은 3일분, 포탄은 불과 2일분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병 제1수송대대는 가용한 모든 차량을 동원하여 보급품을 유담리로 수송하고 추가 보급품을 수송하기 위해 하갈우리로 복귀할 때는 유담리에 있는 차량 50여대를 지원받아 부상병을 태우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유담리를 돌파하는 미 해병 제5,7연대는 전투부담을 경감하고 연결작전 간 행동의 제약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다.

또한 군단이 있는 함흥으로 연결하기 위해 미 제1해병사단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4,359명의 부상자를 공중후송 하였으며,<sup>38)</sup> 인천상륙작전 간 부상당한 597명을 일본에서 치료 후 보충하였다.

〈표 7〉 12월2~5일까지 수송된 병력 현황

구분	하갈우리				고토리
	계	미 제1해병사단	『페이스 TF』	영 해병대	
인원(중상자)	4,312명	3,150명	1,137명	25명	47명

고토리에서 진흥리 간에는 공중재보급을 통해 총 1,580.3톤의 보급품과 장비를 투하하였고 세계전사 상 최초로 완전한 교량이 공중투하되었다. 더불어서 미 해병 제1연대장은 사단 주력이 고토리에 진입하기 전에 14,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와 난로 등이 완비된 수용진지를 준비하여 집결한 병력의 전투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기동속도를 유지시키고 전투효율성을 증대시켰다.

38) 하갈우리에는 공격을 시작하던 11월27일부터 주야작업을 강행하여 12월 1일 오후에는 약 1,000m의 활주로가 완공되었다. 한편 고토리를 방어중인 제1연대장은 12월6일부터 8일까지 비행장 활주로 확장공사를 완료시킴으로써 부상자 444명을 공중후송하고, 사단의 부담을 감소시켰다.

## 6. “집중 :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상대적 우세 달성”

중공군 제9병단의 송스륜은 11월9일 중공군 총사령원 펑더화이에게 “제20, 27군의 주력은 미 제1해병사단 양개연대를 섬멸하고, 미 제7사단을 견제하여 적 일부를 계속 섬멸”할 것을 타진하였다.<sup>39)</sup> 이에 따라 11월27일, 중공군 제27군의 80사단은 신속하게 신흥리 주변의 유리한 지형을 점령하여 미 제31연대 3대대와 제57포병대대를 4km<sup>2</sup>도 안 되는 협소한 지역으로 압축하였다. 또한 제79사단은 59사단과 협동하여 11월 29일 새벽에 유담리의 미 해병사단 주력에 대한 포위를 완료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최초계획을 일부 수정하였다. 즉 중공군은 1:4의 절대 우세한 병력으로 신흥리 일대의 『페이스 TF』를 우선 섬멸한 후 병력을 전환하여 유담리, 하갈우리의 적을 차례로 각개 섬멸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함에 따라 『페이스 TF』를 우선 압축하여 격파하였다.<sup>40)</sup>

〈표 8〉 중공군 제9병단이 판단한 병력 무기 대비표<sup>41)</sup>

구 분	신흥리 지역			유담리 지역		
	UN군	중공군	비율	UN군	중공군	비율
보병대대	4	15	1:3.8	5	18	1:3.6
병력	4,100	16,389	1:4	8,000	18,000	1:2.3

그러나 중공군의 『페이스 TF』에 대한 집중은 미 제1해병사단 섬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정적 장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 기간 중 미 제1해병사단의 하갈우리에 대한 방호력 증강을 허용하였으며, 미

39)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전쟁 경험종합 분석편집위원회, 「중공군이 경험한 한국전쟁(상)」(육군본부, 1956), pp.174~175.

40) 이정근, 「중공군의 6·25전쟁」(서울:해성, 2011), pp.95~96

41) 위의 책, p.149.

해병의 중심임과 동시에 결정적 취약점인 하갈우리에 대한 공격시기를 상실하여 결과적으로는 미 해병사단의 함흥일대로 이탈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오류를 낳게 되었다. 즉, 중공군 제9병단은 적 전투력의 일부를 소멸시키는데 집중함에 따라 전투력이 급속히 약화되었고 공격할 전투력을 상실함으로써 미 해병사단 섬멸이라는 작전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였다.

중공군 제27군은 미 제1해병사단 섬멸에 실패한 원인을 『① 소부대의 과도한 밀집으로 병력을 제대로 전개할 수 없었으며, ② 적의 화망속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 손실이 컸고, ③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병력을 축차 투입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미 제1해병사단의 포위망 탈출을 허용하였다』 고 평가하였다.<sup>42)</sup>

반면 미 제1해병사단의 예하부대들은 유담리, 하갈우리, 진흥리 등 50km에 달하는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으며, 전투력 집중의 효과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적시적으로 적 상황과 기도를 판단한 올리버 스미스 소장은 최우선적으로 사단의 중심(하갈우리)에 대한 방호력을 강화시킨 가운데, 분산된 부대를 하갈우리로 집결시켜 군단과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각 연대전투단을 재편성하여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동로 상의 주요 통제고지에 대한 대담한 공격을 통해 중공군의 전투력 집중을 방해하였다.

더불어서 항공화력의 집중을 위해 11월28일, 미 해병 제1항공사단의 가용한 전 항공기는 원산비행장에서 연포비행장으로 추진되어 최단거리에서 지원토록 조정되었다. 미 제5공군도 원산비행장에 있던 1개 야간 전투비행대대를 연포비행장으로 이동시켰으며, 이외에도 연포비행장에 위치한 공군소속의 제35전투폭격단과 항공모함 스트레이트호에 1개 전투비행대대가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하갈우리와 고토리에 전개한 전 포병부대와 항공전력은

---

4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장진호전투」, 1981, p.200.



## 지상작전의 원칙 측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 연결작전 고찰

모든 화력을 기동로 전방과 주요 감제고지에 집중하여 포위망 돌파여건을 조성하고 화력의 커튼을 형성하여 중공군의 접근을 차단하고 분산을 강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접항공운용 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이 대대급에 편성된 TACP반을 통해 요망하는 지점에 화력을 유도한 반면, 『페이스 TF』는 생존한 1개 TACP반으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다. 『페이스 TF』가 돌파를 시작한 첫날, 20대의 항공기가 『페이스 TF』를 엄호했으나 그것은 지상부대가 요구하는 화력이 아니라 조종사가 판단한 화력의 운용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TACP반이 없는 가운데 실시된 제31전차중대의 연결작전 시에도 반복되었다.

### 7. “기습: 예상치 못한 시간, 장소, 수단, 방법으로 타격”

중공군은 미군의 전투수행방법을 분석하고 도로망이 있어야만 대부대가 기동할 수 있다는 미군의 인식을 역이용하여 산악지역으로 대부대를 기동시켜 미군의 병참선 차단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 제1해병사단은 일반적인 중공군의 인식과는 달리 병참선의 주요 지역을 사전에 확보하고, 중공군의 기습을 거부하였다. 함흥에서 하갈우리에 이르는 진흥리, 고토리과 유담리간 덕동고개의 주요지역은 경계부대가 배치되었으며, 각 부대들은 이를 고수함으로써 사단의 연결작전을 성공시키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미 제1해병사단은 중공군이 예상하지 못한 야간 산악기동을 실시함으로써 적을 혼란에 빠트리고, 희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연결작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지형을 선점하였다. 그러나 장진호 동쪽에서 『페이스 TF』는 적의 예상대로 도로를 따라 주간 이동을 실시함으로써 주요 애로지역을 선점한 중공군의 기습공격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 8. “방호 :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보존, 행동의 자유 보장”

원산에 상륙한 미 제1해병사단은 한국군 제3사단 26연대와 진지를 교대 후 11월2일 수동고개에서 중공군 제13병단 42군 소속의 제124사단과 최초의 전투를 수행하였다.(마틴 러스) 우려했던 중공군의 개입사실은 명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담리로부터 64km나 떨어진 무평리로 신속히 공격하여 미 제8군과 연결을 재촉하는 군단장에 대해 사단장은 강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하갈우리-진흥리간의 유일한 주보급로가 어느 한 지점이라도 차단된다면 사단의 운명은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사단장은 모든 것에 우선하여 미 해병 제 1연대의 예하대대를 진흥리, 고토리, 하갈우리에 각각 배치하여 주보급로에 대한 방호대책을 강구하고 11월18일, 전차통과가 가능하도록 사단 공병대대에 의해 고토리-진흥리간의 도로 보수를 완료하였다. 또한 11월13일부터는 고토리와 하갈우리 비행장 공사에 착수하여 보급과 부상자 후송에 대비하였으며 하갈우리에는 사단 보급소를 설치하고 11월19일 부터는 원산항에서 하역한 보급품의 육로 수송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미 제1해병사단은 8일분의 식량과 유류, 탄약 1.3일분 등을 비축하였다. 이러한 사단장의 선견지명 있는 조치로 미 제1해병사단은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연결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며, 수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한편 하갈우리는 미 제1해병사단의 사활이 걸린 작전의 중심이었다. 적이 하갈우리를 점령할 경우에는 미 2개 사단의 보급과 퇴로가 차단되고 지휘가 마비될 수 있으므로 사단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하갈우리를 확보해야 했다. 중공군 제58사단이 하갈우리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가운데 『페이스 TF』를 공격한 중공군 제80사단이 뒤늦게 공격에 가담하였으나 『드라이스데일 TF』와 장진호 동쪽에서 철수한 제31전차중대 등 강화된 미 제1해병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심대한 피해를 입은 채 다음 공세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 지상작전의 원칙 측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 연결작전 고찰

『드라이스데일 TF』가 병력의 35%를 상실하는 심대한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장의 결단에 의해 하갈우리 진입에 성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붕괴를 막고 군단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산악지형에서 전차운용에 대하여 장진호 전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준다. 좁은 통로에서 실시된 『드라이스데일 TF』의 하갈우리 연결작전 간 전차의 집중운용은 오히려 보전협동을 제한하였으며, 적과 교전하기 위해 정지된 전차는 장애물이 되었다. 또한 제31전차중대의 『페이스 TF』 구출작전은 보병과 협조 없이 단독으로 실시된 전차운용이 적 보병과 근접전투에서 대단히 불리함을 입증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해병사단장은 전차의 충격력을 선택하는 대신 방호력을 선택하여 모든 전차를 제대의 최후미에 편성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연결작전 간 제대의 후미를 엄호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한편 연결작전 간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는 전투력을 목표지역까지 유지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유담리-하갈우리 연결작전 간에는 영 해병 41특공대가 하갈우리 북서쪽에서 미 해병 제5,7연대의 하갈우리 진입을 엄호하였으며, 사단과 군단의 연결작전 간에는 황초령의 애로지역인 1081고지에 미 해병 제1연대 1대대가, 진흥리에는 미 제3사단의 『TF Dog』이 엄호부대로 운용되어 중공군의 위협을 차단하였다.

## 9. “사기 : 지휘관을 핵심, 생사를 초월한 전투의지”

6·25전쟁 발발 시 미 제1해병사단은 부족한 병력을 긴급 소집한 예비역과 대서양지역에 배치된 미 제2해병 사단에서 일부병력, 지중해에 주둔하고 있던 해병 제6연대에서 1개 대대를 차출하여 보충했다. 이렇게 구성된 미 제1해병사단의 장교90%, 부사관60%, 병사10%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전투경험을 쌓은 용사들이었으며 기타 인원들도 낙동강

방어선과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해병대의 전통인 동료에 대한 희생정신과 부대에 대한 강한 단결심을 유지하고 있었다.

12월 2일부터 5일까지 하갈우리에서 부상자를 공중후송 할 때 미 제1해병사단장은 전사자 137명을 마지막 수송기로 후송했다. 이것은“부상당하거나 전사한 전우는 반드시 데리고 온다”는 미 해병대의 전통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사한 전우를 차량, 포신연결부분 등 모든 가용한 공간에 묶어서 데리고 나왔던 유담리-하갈우리 연결작전 등 작전 전 기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더불어서 사단장이 영국인 기자의 철수에 관한 질문에“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라는 전설적인 문구나, 죽음에 계곡에서 포위된 『드라이스데일 TF』의 미 제10군단 해병연락장교인 매크린 소령이 항복을 강요하는 중공군에게 오히려 “중공군의 항복을 접수할 준비가 되어있다. 제네바협약에 따라 대우해 주겠다.”<sup>43)</sup> 라고 전한 내용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정신과 전투의지를 표현하는 말로써 유명하다. 이러한 미 제1해병사단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덕동고개에서 F중대가 고립된 채 중공군 제 59사단의 공격을 5일간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중공군 제9병단을 가장 괴롭힌 것은 혹한의 추위였다. 그들은 한 장의 모포를 가지고 10명이 서로를 부둥켜안고 잤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식량이 고갈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중공군의 전투력 발휘를 제한한 것은 사실이나 국공내전 기간 중 9,600km의 대장정을 겪으며 생과사의 갈림길을 걸어 온 중공군의 사기를 저해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혹한의 눈발에서 맨발로 공격해 오는 중공군의 모습은 미 제1해병사단 병사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비춰졌다.

반면 각각 다른 소속의 부대로 편성된 『페이스 TF』의 단결력과 사기를 논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장진호로부터 약 100마일정도 이격된

---

43) 마틴 러스, 「브레이크아웃」 (서울:나남, 2004), p.344.

## 지상작전의 원칙 측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 연결작전 고찰

상태에서 급하게 장진호 동쪽으로 이동했던 미 제7사단의 『페이스 TF』의 붕괴를 보병과 해병대의 정신력 차이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그들은 미 제10군단에 의해 급하게 결정된 계획에 따라 미 제1해병사단의 우측방을 방호하기 위해 투입되었다. 공격 개시일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11월26일까지 장진호로 집결하여 공격을 개시한다는 것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국경으로 분산되어 진출한 미 제7사단은 어느 한 연대만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 연대에서 1~2개 대대를 차출하여 제31연대전투단을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제32연대 1대대원들은 제31연대 3대대나 제57포병대대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전이 진행되었다.<sup>44)</sup>

『페이스 TF』의 간부들은 3,000여명의 병력과 차량 30여대에 실린 부상자 600여명을 관리하며 적과 싸우도록 병사들을 독려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갈수록 중공군의 파상적인 공격으로 피로와 공포가 혼재된 상황에서 병사들은 장교와 부사관들의 명령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페이스 중령이 전사하고 말았을 때, 그때까지 겨우 유지했던 부대의 전투의지는 사라졌다. 누구도 지휘권을 인수하려 하지 않았고 『페이스 TF』는 붕괴되었다. 공통의 소속감과 전우애가 없었던 부대원들에게 개인의 생존은 곧 현실이었던 것이다.

## VI. 결론

전장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지 못한 유엔군 사령부의 오판과 작전적인 오만 속에서 수행된 크리스마스 공세는 작전적 수준의 제대가 선부르게 판단한 결과가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술제대가 이러한 재앙을 막기는

---

44) 앞의 책, p.453.

어려우며 설혹 막는다 해도 막대한 희생이 수반 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준다.

유엔군 사령부의 오관은 서부지역에서 군우리와 온정리, 묘향산맥 일대에서 유엔군의 전투력에 재앙과 같은 피해를 불러 왔으며, 유엔군이 소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결과적으로 유엔군은 중공군과 모든 접촉을 단절하고 38도선 일대로 철수하였으며 한반도 포기라는 논쟁에 휘말려들었다. 이러한 오관 속에 수행된 미 제1해병사단의 전술적 승리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미 제1해병사단의 전술적 성공은 제병과의 통합된 노력뿐만 아니라 적시적이고 적극적인 미 제1해병항공사단과 미 제5공군의 공로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동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한다. 또한 미 제1해병사단의 전술적 성공의 뒤에는 오히려 중공군 제9병단의 작전적 오관이 뒷받침되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싸움에서 장진호라는 공간에 둘러싸여 전술적 성공에 과도한 집착을 보임으로써 미 제10군단의 해상철수를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을 상실하였던 것이다.

이 전투의 결과 중공군 제9병단의 피해는 심각했으며, 1951년 4월까지 공세에 참가하지 못하고 부대를 재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한반도를 포기하고 일본으로 철수할 뻔 했던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즉, 장진호 전투는 대한민국을 구해낸 전투인 것이다.

## | 참고문헌 |

- 강경표. 2012.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사」, 인천:진영사.
-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2010. 「6·25 전쟁사」 제7권.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1. 「장진호전투」, 육군인쇄창.
- 데이비드 헬버스탐. 2009. 「콜디스트 윈터」, 파주:살림 출판사.
- 로이 E 애플맨. 2013. 「장진호 동쪽」, 서울:다트 앤.
- 마틴러스. 2004. 「브레이크아웃」, 서울:나남.
- 육군교육사령부. 1996. 「한국전의 기동전 분석」, 육군인쇄창.
- 육군대학. 2004. 「6·25전쟁사 부도」, 육군인쇄창.
- 육군본부. 1956. 「중공군이 경험한 한국전쟁(상)」. 육군인쇄창.
- 육군본부. 2013. 야전교범 0-1 「전술」, 육군인쇄창.
- 육군본부. 2011. 야전교범 0 「지상군기본교리」, 육군인쇄창.
- 이정근. 2011. 「중국군의 6·25전쟁」, 서울:혜성.
- 최용호. 2004. 「6·25전쟁의 실패사례와 교훈」, 육군 군사연구소.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1. 「중공군의 한국전쟁사」(항미원조전사), 서울:세경사.
- 합동참모본부, 2015. 「합동작전」, 국군 인쇄창.
- 홍학지, 2008. 「중국이 본 한국전쟁」, 한국학술정보.

From the point of view of ground operations  
principle, Chosin Link-up operation discussion of  
the US 1st Marine Division

Kim, Kyu-Bin\* · Choi, Yong-Yoel\*\*

US 8th Army in the attack on the Western Front was a situation that was frustrated by the 13th Corps Communist army. To this time support this, goals that have been granted to the US 1st Marine Division that initiated the attack in Mupyonri direction, lack the potential to achieve was not decisive. It was a operation specific erroneous judgment that occurred because there was no one accurately grasp the battlefield of the situation the wrong UN Forces Command.

Tactical victory can be to maximize the operation outcomes. However, there is no possible failure of the operation is to expand the tactical success. This is because the failure of the operation, because directly linked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war.

Tactical victory can be to maximize the operation outcomes. However, operation specific failure is not it possible to expand the tactical victory. Therefore tactical success of the US 1st Marine Division, can not compensate for operation specific failure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Command.

However, Chinese Communist Army 9th Corps is obsessed only victory

---

\* Joint Forces Military University, Instructor

\*\* Joint Forces Military University, Instructor



## 지상작전의 원칙 측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 연결작전 고찰

of tactics to annihilate the US 1st Marine Division, by being fixation to the Chosin whole area, it was not possible to run a operational operation. Therefore tactical success of the US 1st Marine Division, Chinese Communist Army 9th Corps is to extinguish the ability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13th Corps of the Western Front, 8th Army US have contributed to have escaped the crisis. In addition, the US 10th Corps while maintaining the combat force, by an important role to withdraw through the sea, was able to complement the misjudgment of the operation.

***Key Words*** : Link-up operation, misjudgment of the operation, tactical success, Chinese Communist Army 9th Corps, US 1st Marine Division